

## 인협, 정기 이사회 및 산업시찰 8월 26~27일 산업시찰 겸한 이사회 개최 제지업계와 상생경영 도모의 계기 마련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8월 26, 27일 이틀간에 걸쳐 한솔제지 신탄진, 대전, 장항공장에서 산업시찰을 겸한 2011년 제2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쇄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지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한솔제지(대표 권교택)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은 “혹서기를 맞아 경영일선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사진의 노고를 위로하고 협회 산하 여러 위원회에서 수고하는 위원님들과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에는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업계의 원로 분들도 함께 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최창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인협 이사와 위원, 원로들이 참석했다.

## 첫째날 \_ 한솔제지 신탄진, 장항 공장 방문

행사 첫날인 8월 26일에는 아트원제지 신탄진공장(공장장 정동원 상무), 한솔제지 대전공장(공장장 겸 생산본부장 손창만 부사장)과 장항공장(공장장 이용기 상무)을 방문해 기념촬영 및 생산설비 및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후에 이어진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인쇄용지의 품질과 가격동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한솔제지는 각 사업장별로 인쇄업계와의 공생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Value-up파트너’ (고객가치창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공장별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용지의 특성과 장점을 적극 알리기도 했다. 특히 한솔제지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Value-up파트너’ 활동 및 ‘클레임Zero, 100%보상’ 서비스에 대해 한솔제지측은 결코 1회성 또는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인쇄업계와 공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인협 이사진과 위원단은 “인쇄사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진심이 느껴진다”, “단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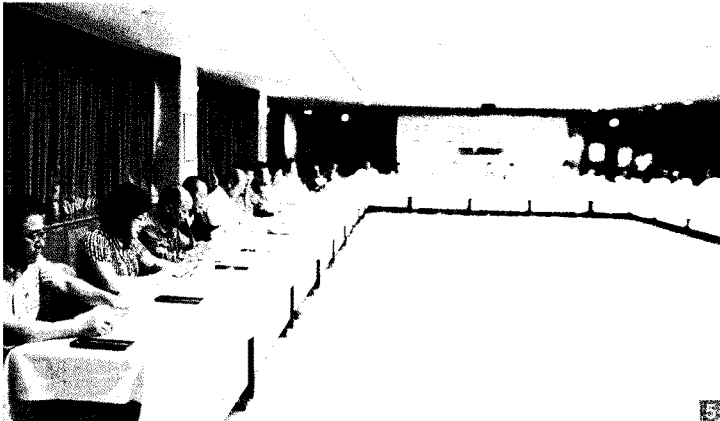
인협 김남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사님들과 위원님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여러모로 협력해준 한솔제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정한 공생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솔제지 서재우 영업본부장은 “한솔제지가 VIP고객 초청행사의 일환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 40대 임원분들과 위원님들을 초청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고객만족과 자부심을 제공하고 문화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솔 제품 구매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VIP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공장 현황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이사진과 위원단
2. 한솔제지의 브리핑을 경청하는 인협 시찰단
3. 제지 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김남수회장과 임원들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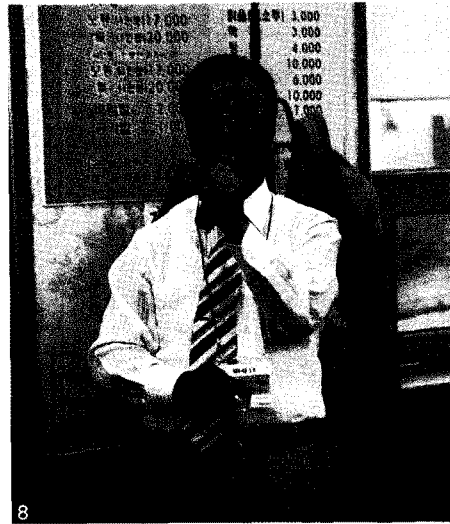
6

### 2011년 제2회 이사회 개최

한솔제지 장항공장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제2회 이사회는 2011년도 2/4분기 사업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와 기타사항으로 진행됐으며 상정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남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이들간의 일정으로 산업시찰을 겸한 이사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이사님들과 위원님들을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수 회장은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쇄업계의 뜻을 한데로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곳에 함께 한 이사님들과 위원님들이 그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4. 전시물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있다.
- 5-6. 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한 이사회 전경
- 7. 환영연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남수 회장
- 8. 건배 제의를 하는 홍우동 명예회장
- 9. 한솔제지에서 제공한 웰빙상품권을 전달하는 모습
- 10-11. 유람선에서 본 주변풍경



10

11

이어진 저녁 환영연에서 인협 홍우동 명예회장은 “인쇄업계의 발전을 다함께 힘을 합치자”는 건배제의를 했으며 한솔제지에서 증정한 웰빙상품권 추첨시간 등이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첫날, 공식일정을 마친후에도 산업 시찰단 일행은 삼삼오오 모여서 인쇄업의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가 하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둘째날 \_ 문화행사로 화합 다져

둘째날인 27일에는 운동팀과 유람선 관광팀으로 나눠 문화행사를 진행해 참석한 이사진과 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초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비가 오지 않고 적당히 흐린 날씨를 보여 운동팀과 유람선 관광팀으로 나누어 각각 예정된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문화행사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날려 보내며 새로운 의욕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